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계획

2023. 2. 14.

고 용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순서

I. 추진배경	1
---------------	---

II.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방안	2
-----------------------------	---

1.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2
------------------------------	---

2. 안전문화 확산 추진방안	4
-----------------------	---

[붙임 1] 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지부 매칭표

I. 추진 배경

-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22.11.30)

*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 목표('21년 0.43‰)

-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법·제도 혁신과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나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

* ▲ 독일: 안전문화 내재화를 바탕으로 자율 예방규칙 준수→ 사고사망만인율 0.07‰

▲ 영국: 위험 발생 시 결과 책임을 지는 안전의식 내재화→ 사고사망만인율 0.08‰

- 이에 안전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본 토대(Fundamental)로 “안전의식 내재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제시

특별관리: ③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보편수단: ②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기본토대: 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산 우선, 안전은 비용, ‘설마’라는 안이한 의식, 고질적인 ‘빨리빨리’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 만연
- 처벌과 단속 중심의 타율적 규제와 단발성의 형식적 홍보는 안전 주체들의 자발적 각성과 안전문화의 형성을 저해하기도 함
-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의식·문화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
- 이를 위해 노사 안전주체들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
-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캠페인·포럼·기획행사·안전활동 등을 통해 안전 의식과 안전 감수성을 내재화하는 전략적 노력 필요

Ⅱ.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방안

1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 **(목적)**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공고화하고 널리 확산
 - 노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안전활동을 독려
 - 안전 메시지 전파와 함께 작업·공정별 안전예방활동을 지원하여 사업주·근로자들의 ‘안전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 **(구성)** 지역 거버넌스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과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으로 함께 구성하고 지역별로 설치
 - (공공)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공공기관
 - * ▲지방고용노동지청은 기관장,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안전보건 공단은 기관장은 필수 참여, 그 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참여
 - (민간)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 * 참여 의지가 있는 지역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적극 참여 추진

구분		참여자별 역할
공공	지방고용노동관서	· 추진단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총괄, 추진단 회의 주관(공문 시행), 추진단 활동 계획 수립·결과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안전정책 강화, 지역 내 산업단지, 생활권 중심 안전문화 홍보(지자체 예산 중점 활용), 지자체 안전정책 제도 수립과 추진단 활동 연계
	안전보건공단	· 홍보 메시지 개발·보급, 추진단 네트워크 관리(연락, SNS 운영 등), ▲추진단 회의 운영(장소임차, 비용 지급), ▲추진단 활동 실적 관리, ▲예산관리 등
	지역별 공공기관	· 기관별 네트워크를 활용, 사업 활동과 안전문화 홍보 연계

민 간	노사단체	· 회원사(社), 조합원(勞) 대상 홍보사항 전파, 사업장 및 작업공정별 안전예방 활동 실천(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 현장 안전활동 실천 지원, 사업주 대상(회원사 등) 안전 활동 홍보·확산, 업종·직종별 안전문화 확산
	지역 언론사	· 추진단 활동사항, 핵심메시지 등 기획기사 추진, 언론사 홈페이지, 지면 등에 안전문화 홍보 메시지 송출
	민간재해예방기관	·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현장 홍보,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안전활동 실천·확산

○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설치되어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

- 서울과 같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지청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대표청이 주관해서 함께 운영 [붙임 1 참조]
- 홍보 내용상 분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 지청 단위로 추진

☞ 구성시 착안사항

- 추진단은 원칙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 기관 및 인원 조정
 - 안전보건공단 지사가 여러 지역을 관할하고, 민간 참여기관 발굴이 어려운 지역은 축소 운영 가능(15명 내외)
 - * ▲태백, 강릉, 영월, 진주, 통영, 구미, 영주, 안동, 안양, 안산, ▲익산, 군산, 천안, 서산

□ (운영)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추진단 운영을 총괄

* 참여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장 등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선임

- (지원반)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반을 해당 지방관서에 설치, 추진단 간사 역할 수행(산재예방지도부서장(과장), 추진단 업무 전담 감독관, 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
- (정기회의)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 메시지 및 방식(타겟별), 추진 시기 등 분기별 추진단 활동 추진계획 마련
- (홍보) 중앙 차원 또는 자체 지역행사 등 현장 홍보활동 지속
 - * ▲캠페인·포럼·현장 행사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현장 합동점검 등
- SNS 상시 소통채널(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 홍보 메시지, 모범사례 등 공유 및 전파
- 산업안전보건본부(고용노동부), 안전문화홍보실(안전보건공단)은 홍보 메시지 개발 및 자료 작성, 매체 섭외 등 지역별 홍보활동 지원

1. 기본 방향

❖ 『안전 대한민국』의 기본 토대로 지역에서부터 안전 의식과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중앙은 지역별 활동을 집중 지원

□ **(현장성)** 현장 실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활동에 집중

- 근로자 등 의견을 수렴, 노사·국민 등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은 현장 공감대가 높은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 지역별 산업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고, 근로자, 시민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유동인구 밀집지역(지역 변화가 등) 중심으로 홍보

□ **(참여성)** 사업주, 근로자,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안전 의식 내재화 추구

- 단편적, Top-down 방식의 메시지 전달 등 일방적 홍보를 지양하고, 캠페인·공모전 등 참여 방식의 홍보 추진
- 다양한 주체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 식당, 화장실, 학교, 주요 교통로 등 홍보 장소 다양화

□ **(지속성)** 시기별 홍보 간 연속성을 강화하여, 연중 홍보활동을 계속

- 시기별 중점 홍보사항(홍보 주제 및 대상 등)을 구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노출 빈도 확대
- 특성이 유사한 지역은 지역별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홍보 시너지 극대화

□ **(다양성)** 노사 등의 안전 감수성을 자극하는 내용과 실제 안전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술공학적 내용을 결합한 홍보 추진

- 작업공정별 위험과 대처법 등 중요한 안전예방 사항을 호소력 높은 홍보로 산업현장에 전파

2. 추진 전략

- **(효과 극대화)** 중앙과 지방의 가용자원을 총동원(예산, 네트워크 등)하여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현장 중심의 공동·협업 캠페인, 온-오프라인 방식의 다각적 홍보 추진
- **(중앙-지방 협업)** 전국단위 홍보와 지역별 홍보를 유기적으로 연계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본부는 전국단위 홍보를 기획하고, 추진단에 안내
 - * ▲언론, TV 등 주요매체 활용 홍보, ▲ 주요 정책·제도 관련 핵심 메시지, 콘텐츠 개발 등
 - 지역별 추진단은 전국단위 홍보콘텐츠에 지역특성을 보완(주요 업종, 빈번한 사고유형 등)하여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홍보 기획·추진
- **(메시지 차별화)** 대상별 중점 메시지를 구분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사업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근로자: 참여와 책임 강조, ▲일반 국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홍보 메시지 차별화

3. 세부 추진 방법 [예시]

① 안전문화 노출하기

❶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기초적 안전시설을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 마련하도록 지자체·노사단체·지역 언론 공동 안전캠페인 추진
- 카드북, 포스터,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등 안전보건 자료 배포

② 시민생활 장소 홍보 유인물 배포

- 지자체와 협업하여 아파트단지·주민센터·문화시설 출입구, 엘리베이터(E/V) 등에 안전 홍보물 등 게시
 - 세금고지서, 생활통지서, 주민센터·공공기관 사업 안내문, 은행창구 홍보물 활용(예: 핵심 안전수칙 준수 안내 QR코드를 제작·삽입 등)
 - 공공기관·지자체 운영 전광판·현수막 등 활용
 - 상가협의회, 식당운영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시내 주요 상가, 인기 카페·음식점 등) 중심으로 릴레이 홍보 추진
- * 예시) ▲3월: A동 중심 상가, ▲4월: 식당운영협의회 소속 식당 등(디지털 사이니지, 라이트박스, 현수막 등 활용)

③ 지역 대중교통*(버스 광고, 지하철 전광판, 택시 등), 우편소포물 등에 안전 홍보물 부착

* 출·퇴근 이용빈도가 높은 노선 위주

- 홍보문구를 개발, 버스·택시 회사 등 교통회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

☞ 홍보문구 예시 : ▲당신의 출근길, 퇴근길 안전을 책임집니다!, ▲교통 신호 준수! 안전 수칙도 당연히 준수!

④ 근로자 주요 동선 밀착 홍보

- 산업단지 구내식당, 인근 식당·카페 등에 안전문화 메시지 등을 인쇄한 테이블셋팅지·컵홀더 등 제작·배포
- 사업장 내 화장실, 작업장 출입구, 통근버스 등에 안전 스티커, 표어 등 부착
- ▲오피스·아파트형공장 E/V, ▲산업단지 인근 편의점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영상 송출(출·퇴근, 점심시간 위주)

⑤ 대규모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추진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안전일터 조성의 날」로 변경하여 노사 공동 현장 점검·개선 확산(TBM 내재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병행)

⑥ 온라인 영상 홍보

- 지역·업종별 사고사례 및 예방수칙 안내 숏폼 콘텐츠 제작·보급
* 지역 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송출 추진

⑦ 릴레이 기획 보도(지역방송, 신문사, 일간지 등)

- 캠페인 등 주요 활동사항 보도자료 배포
- 추진단장 등 참여 주체별 릴레이 언론 기고·라디오 인터뷰 추진

⑧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홍보

- ‘월간 안전보건’에 추진단 활동 소식을 작성하고, 공단, 업종·직종별 협의회, 민간재해예방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등 배포

2 안전문화 참여하기

① 안전문화 슬로건 확산

- 산업 특성, 업종별 사고예방 중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안전 문화 실천 슬로건 설정

- ◆ 지역 산업특성: 반도체(경기), 디스플레이(충남), 이차전지(충북), 탄소소재(전북), 조선(울산·통영), 뿌리산업(인천·시흥특화단지 등), 자동차부품(대구, 창원 등)
- ◆ 업종별 사고예방: ▲조선업: 하청근로자 보호 ▲화학업: 화재·폭발예방 ▲제조업: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 등, ▲건설업: 근로자 추락 방지 예방

- 지역별 주요 업종의 사업장과 슬로건 실천협약을 맺고, 근로자 등 안전 주체들에게 전파

☞ 예시: ▲사업장 주요 장소에 **현수막, 안내판** 등 활용, ▲ 특정 시기, 장소(주요 교통로, 산단 입구 등)를 정해 슬로건을 함께 외치는 **출근길 가두 캠페인 진행** 등

-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배너에 지역특화 슬로건 표출

② 안전 구호 만들기 운동 추진

- 안전 구호를 여러 개 개발하여 각 사업장이 안전구호를 채택하도록 안내→ 사업장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구호를 외치는 문화 형성

☞ **안전구호 예시** : ▲안전모, 안전화 착용은 기본!, ▲출근부터 퇴근까지 무사고!, ▲매초, 매분마다 안전 확인!,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00제품의 주재료는 우리들의 안전!, ▲작업은 안전 확인부터 시작 등

- 업종별 협의회·노사단체 등은 안전구호 채택 사업장 확산

③ 기업의 ESG 경영 참여 홍보

- 국내 주요기업, 지역 대표 주류회사, 소비재 업체, 특산물 제조업체 등과 협업하여 주요 제품에 안전 메시지 노출

☞ 예시 : ▲안전문화 관련 00소주병 라벨 제작·배포, ▲00시 유명 제빵가게 포장지에 안전문화 관련 문구 포함, ▲주요 브랜드 PB상품에 메시지 인쇄 등

④ 시민 참여 공모전

- 사내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 등 사업장 영상 공모전 개최
- 초·중·고생 대상 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등 공모전 개최
 - * 우수 작품은 장관상 표창 부여 검토
-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웹툰, 영상 공모전 개최
 - * 공단 홍보실을 통해 우수작은 웹툰사이트 게시, IPTV 송출 등 확산

③ 안전문화 응원하기

① 토론회, 포럼 등

- 안전문화 토론회·포럼·퀴즈대회, 위험성평가 경연대회 등 개최

② Zero 산재 캠페인(예: 안전의 꽃 달아주기)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Zero 산재 캠페인 개최, 자녀가 부모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 예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전의 꽃 달아주기' 캠페인, ▲아빠, 엄마! 오늘 하루 무사히 퇴근하기(오무퇴) 캠페인 등

③ 안전문화와 지역행사 연계

- 지역별 축제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 기원식, 등반대회,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④ 안전문화 응원 영상 송출

- 인지도가 높은 YouTube 채널을 활용, 범사회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명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영상 제작·송출

☞ 예시: 세상을 바꾸는시간 15분(세바시, 전문가·학자·시민 등이 출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⑤ 안전문화 홍보대사 선정

- 지역별 명사 등을 안전문화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안전문화 확산 촉진

⑥ 위험요인 대처법 공유모임 확산

- 작업·공정별 기술공학적 위험과 대처법의 중요성과 기법을 공유하는 업종·직종별 모임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지식·태도 결함 문제 해소

연번	지방관서명		지사명	연번	지방관서명		지사명
1	서울청	서울청	서울광역본부	27	중부청	안산	경기서부지사
2		서울강남	서울광역본부	28		의정부	경기북부지사
3		서울동부	서울동부지사	29		성남	경기동부지사
4		서울서부	서울광역본부	30		평택	경기지역본부
5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사	31		고양	고양파주지사
6		서울북부	서울동부지사	32		강원	강원지역본부
7		서울관악	서울남부지사	33		태백	강원동부지사
13	부산청	부산청	부산광역본부	34		강릉	강원동부지사
14		부산동부	부산광역본부	35		원주	강원지역보부
15		부산북부	부산광역본부	36		영월	강원동부지사
16		창원	경남지역본부	37	광주청	광주청	광주광역본부
17		울산	울산지역본부	38		전주	전북지역본부
18		양산	경남동부지사	39		익산	전북서부지사
19		진주	경남지역본부	40		군산	전북서부지사
20	통영	경남지역본부	41	목포		전남지역본부	
21	대구청	대구청	대구광역본부	42		여수	전남동부지사
22		대구서부	대구서부지사	43		제주	제주지역본부
23		포항	경북동부지사	44	대전청	대전청	대전세종 광역본부
24		구미	경북지역본부	45		청주	충북지역본부
25		영주	경북지역본부	46		충주	충북북부지사
26		안동	경북지역본부	47		천안	충남지역본부
27		중부청	중부청	인천광역본부		48	보령
28	인천북부		인천광역본부	49		서산	충남지역본부
29	경기		경기지역본부				
30	부천		경기중부지사				
31	안양		경기서부지사				

